



무주군 무풍면, 기초생활거점 성과공유회 개최

무주군 무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주민 성과공유회가 지난 28일 무풍중·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동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추진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동아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대석 주민위원장을 비롯한 3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체험 부스 운영, △추진성과 발표, △풍물·색소폰·라인댄스·난타·통기타·동화구연·트로트 합창 등 주민 동아리 공연, △향후 계획 및 공동체 대표 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마을의 변화는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5년 전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최근 전주검정완주축협 김제지점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공단 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고, 2025년도 한 해 자원봉사자 활동 소개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식 △유공 자원봉사자(총 36명) 포상 △주요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특별히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북현대모터스 최철순 선수가 참석해 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사인볼 10점 및 축사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노암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행복 밥상 전달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사계절 이웃사랑 행복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맞이 보양식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따뜻한 식사를 전달했다. 이번 밥상은 갈비탕과 목, 두유 등 영양 가득한 보양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은 관내 식품업체인 노고단식품 강상길 대표가 후원했다. 강상길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광활면 지사협, 취약가구에 겨울 이불 지원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은미)가 지난 28일 난방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난방 취약계층 46가구에 겨울용 이불을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며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발굴과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등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박노태 기자

알림
▲제42회 완산칠봉기 타기 전국옹변·스피치·시낭송대회= 일시: 6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주최: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총본부, 주관: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지부, 기타 문의사항: 063-231-6669, 285-6676, 010-7304-5665

김소라 교수팀, 곤충학회 학술대회서 2관왕

전북대 한 희 석사생, 태극나방과 진화역사 정밀 구축 '우수상'
김지승 석사생, 희귀종 짝짓기 장면 포착 사진 선보여 '장려상'

김소라 교수

한 희 석사과정생

김지승 석사과정생

전북대학교 김소라 교수 연구팀(곤충계통진화연구실)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응용곤충학회 국제 추계학술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이 대회에서 한희 석사과정생이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차세대 시퀀싱(NGS) 기반 AHE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태극나방과(Erebidae)'의 진화 역사를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전 세계 2만5천여 종이 속한 대형 분류군인 태극나방과는 농업·산림 해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기존 연구는 제한된 유전자 구간에 의존해 정확한 계통구성이 어려웠다. 한희 학생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아과 간 유연관계를 견고히 규명, 향후 국제 분류학·계통학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연구실의 김지승 석사과정생도 장려상을 받았다. 정정 계류 상류의 빠른 유속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 '여리광대소금쟁이'의 짝짓기 장면을 포착한 사진으로 관심을 받았다. 촬영 기록 자체가 극히 드문 종의 독특한 생태 행동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들은 지도한 김소라 교수는 “두 학생이 학문적 연구와 대중 소통 두 분야에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곤충 계통·진화 연구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COPD·결핵 적정성 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지역 호흡기질환 진료 역량 우수성 입증

전북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호흡기질환 진료 분야에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진료 질을 향상하고 국가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등급화해 공개한다. 올해 COPD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78% △지속 방문 환자 비율 84.9%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률 88% 등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해 종합점수 83.4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결핵 평가에서도 전북대병원은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결핵균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약



제처방 일수를 등 주요 항목을 모두 100% 달성해 종합점수 100점을 받으며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병원은 이번 결과가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 구축과 지속적인 의료 질 개선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 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병원의 진료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지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위한 ‘따뜻한 한국 겨울나기’ 지원

20여명에 고급 겨울 이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 속에서 유학생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20여 명의 유학생에게 고급 겨울 이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전주대학교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송태진) 후원으로 추진됐다. 송태진 이사장은 “타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유학생들은 우리 지역과 대학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인재들”이라며 “이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매년 겨울 온정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협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멘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몽골 출신 유학생 몽흐자야 씨(한국어연수 과정)는 “한국에서 처음 맞는 겨울이라 준비가 부족해 추위가 걱정됐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두꺼운 이불과 다양한 선물을 받게 돼 정말 감격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올겨울은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K-Heritage 팝업스토어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패션산업학과는 오는 2~4일 학생회관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패션산업학과에 따르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창업동아리 4개팀(참여동아리: 오전, 사부작, 재결, 한뎃)은 한국의 K-헤리티지(Heritage)를 기반으로 패션상품을 개발, 지난 11월 전주 웨리단길에서 상품 전시 및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인후지사 246-6855	010-9088-6874	남원지사 김제지사 545-1227	632-3996	임실지사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010-9845-4113	남원지사 순창지사 653-0444	632-0986	정읍지사 정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9-992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고창소방서는 최근, 고창소방서에서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우수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추진됐다. 심사 결과 대상은 고창초등학교 5학년 2반 강수빈 학생의 작품 '행복한 일상이 작은 불씨 하나로 사라집니다'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고창초등학교 2학년 채서람, 김소은, 나아린 학생의 작품이 각각 뽑혔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 4점은 고창소방서 대표로 전북도 불조심 포스터 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상 5점과 장려상 10점을 포함해 총 1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교대, 2025년 학과 홍보영상 경진대회 시상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6일 '2025년 학과 홍보영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무학과제 정착과 1학년 재학생의 전공(심화과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까지 학과 추천을 통해 모집된 12개 학과 70명의 학생은 각 학과의 특성과 강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출품, 심사 결과 금상을 수상한 실과교육과를 비롯한 은상 2팀, 동상 3팀 등 총 6팀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병춘 총장은 “학생들이 전공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탐구하고 이를 콘텐츠로 표현한 경험은 미래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 중심의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작 및 참여작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향후 2년간 심화과정 선택 설명회 및 대학 홍보 등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천동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최근, 구천동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성곤 조합장은 올 한해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경고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중심에 두고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기통신 사기와 대표통장 문제는 이미 농촌 지역까지 파고든 사회적 위험'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 농촌 금융안전망을 확실히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신풍동지사협, 취약계층 맞춤형 방한 이불 지원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가 지난 28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23세대에 맞춤형 방한 이불세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난방이 어려운 가구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담과 연계 지원 체계 마련에 힘썼다. /김제=박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